

탄핵선고 전후 대선주자 지지선언 잇따를 듯

이병완·김승남 등 참여정부 인사 포함 57명 안희정 지지
문재인·이재명·최성 후보도 지지모임 중심 선언할 듯
국민의당도 안철수·손학규·천정배 진영별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전후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박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대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 전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 결정 이전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후보별 지지선언은 선고 이후에 불꽃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 선언은 후보의 외연을 넓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 이어서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꽤 중요한

과여기고 있다. 7일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와 김승남·서갑원 전 국회의원, 김보현·김영남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 전·현직 시도의원, 정치인,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57명이 안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지사는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판결 이후 예측되는 갈

등과 대립양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안 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이며, 이념과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안 지사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체감 지지도와 발표되는 지지율의 괴리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민심의 흐름과 지지도가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안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해당 주자별 지지모임을 중심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민주당 경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을 전후해 후보별 지지 선언 등 각 후보 별 세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실무에서 지지선언 등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탄핵을 앞두고 경선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며 “현재는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천정배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도 각 진영별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각 후보측에서는 탄핵 심판 이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지지 선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어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후보별 지지선언이 불꽃 타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기존 지지단체를 앞세우기보다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는 등 세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12개 기업과 861억 투자협약 체결

한국상용트럭·벡센L&C 등

광주시는 7일 국내외 12개 기업과 86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유형별로는 자동차 분야에 한국상용트럭(주) 등 3개사 318억원, 물류분야에 벡센L&C(주) 등 2개사 210억원, 에너지 분야에 (주)에스티 등 5개사 130억원, 가전분야 (주)광원이엔지 153억원, 반도체 분야 동하코퍼레이션(주) 50억원 등이다. 한국상용트럭(주)은 지난해 기준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한 특장차 분야 전문기업으로 일본 4대 상용차 메이커인 히로시마 히노자동차(주)의 자본투자를 받아 평동외투지역에 한국상용차(주)를 설립하고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남도금형(주)는 미국 완성차 업체 2개사에 금형과 부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평동산단에 105억원을 투자하고 (주)지플라텍은 기아자동차에 공급할 신규부품의 추가 생산을 위해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벡센L&C(주)는 진곡산단에 135억원을 투자해 넥센타이어의 호남지역 공급거점을 확보하고 선진SCM(주)도 진곡산단 내 이마트 위드미 편의점 물류거점을 구축한다. 에너지산업 분야의 (주)에스오디, (주)신창전설 등 5개사는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진곡산단에 태양광 가로등과 수배전반 제작공장 신축을 위해 130억원을 투자한다. (주)광원이엔지는 광주로 이전 예정인 (주)대유위니아 협력업체로, 냉창고와 스탠드 감지냉창고 도어 생산라인 구축에 153억원을 투자한다. 동하코퍼레이션(주)은 경기 부천의 본사와 공장을 첨단단지 광주공장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이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광주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R&D특구 내 18개 기업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섬진강 동방천서 어린연어 50만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8일 섬진강 수계 동방천에서 어린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한다. 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8일 학생, 지역주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어린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지난해 10~11월 섬진강에서 포획한 어미연어 124마리에서 생산한 수정란 6만5000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서 제공한 52만5000개를 직접 부화해 3개월 동안 4~6cm 크기의 치어로 양식·관리해 왔다. 이날 방류되는 어린연어는 섬진강 하구에서 40일간 적응을 거친 후 남해, 동해를 거쳐 일본 북해도, 베링해, 알래스카 등 북태평양 해역에서 2~5년간 60~100cm로 성장한 후 섬진강으로 다시 돌아와 산란하게 된다. 섬진강 어린연어 방류행사는 지난 1998년 시작해 2016년까지 19차례에 걸쳐 718만5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는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에서 연어자원 쿼터량(어획량)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섬진강으로 돌아온 어미연어는 자원조사, 시험연구, 통계조사 등 연어의 생리생태, 성장 단계별 특성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3종), 임실납자루 등 멸종위기종(4종)을 포함한 토산어류 59종 2000여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북,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 공개

모습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박수를 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4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전략을 혁신적으로 실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민원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소통으로 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과 ‘듣고 보는 시장실’ 운영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고충 민원을 해결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민원서비스 평가 광역지자체 중 1위

광주시가 ‘2016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에 선정돼 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체계 분

야와 민원처리실태평가를 종합해 최종 평가했다.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한 광주시는 지난해 민원행정 비전을 ‘시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제감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추진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임명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이 최근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내 남북관계 전문가다.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 이

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ock과 함께하는 ‘모터페스티벌’ 열린다

다음달 29일부터 8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Rock과 함께 하는 ‘2017 전남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Rock과 함께하는 ‘전남 모터페스티벌’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자동차경주와 레저페스티벌이 융합된 스포츠 이벤트인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행사다. 4월 29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락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전국도레자랑(5월 2

일), EBS벵개밴(5월 5일) 등 전국 단위 행사가 펼쳐진다. 또 슈퍼카를 타고 경주장을 달리는 슈퍼카 택시타임, 레이싱카, 슈퍼바이크 모터쇼와 함께 BMW모바일 캠퍼스, 키즈라이딩스쿨, VR레이싱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모터스포츠와 파우폴한 락음악을 결합한 ‘MotoRock’ 페스티벌에는 YB, 김경호, 지상파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인 ‘북면가왕’에서 9연승을 차지한 ‘음악대장’ 국가스텐을 포함해 한국 락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전인권 밴드, 자이언티, 각스, 페퍼톤스, 안영바다까지 국내 최정상급 14팀이 참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